



2012 ISSUE PAPER

유사실업률로 본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수행과제명 |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유사실업률로 본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수행과제명  최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김 영 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dimail.re.kr

요약

실업률은 노동공급의 과소활용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인데, 우리나라 여성실업률이 2011년 현재 2.7%로서 체감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본고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실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하여 여성실업의 구조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업률 보조지표의 개발 및 실업대책의 외연 확대를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여성 실업률은 2011년 현재 2.7%로서 완전고용 상태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인력활용 수준이 완전고용상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체감실업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겨우 50%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것은 외국과 비교하여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실업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본고의 목적은 기존의 공식실업률 지표가 구직활동의 요건 등을 강하게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실업자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실망실업자, 불완전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도록 실업률 지표를 확장함으로써 여성 과소활용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려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공식 실업률 추이와 특성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공식 실업률은 ‘조사 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또는 1주간)¹⁾ 일 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정의에 따라 측정됨.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남성의 실업률은 3%대, 여성의 실업률은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업자의 규모도 감소하는 추이로 여성실업자는 2011년 28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76만명중 36.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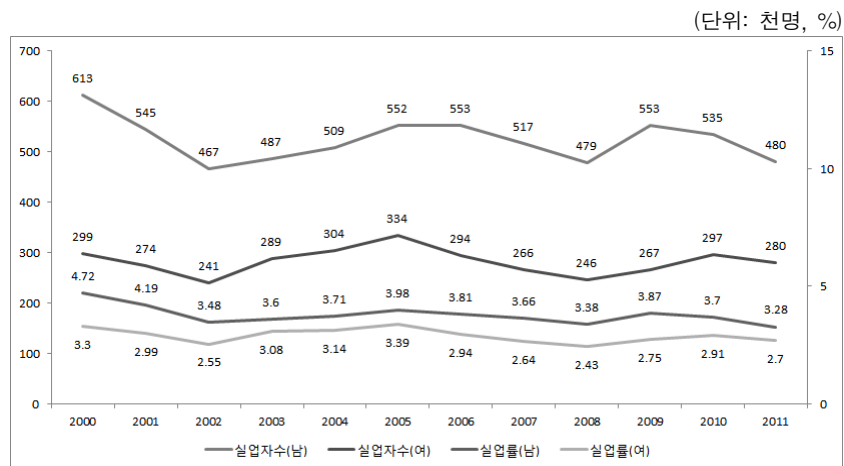
공식 실업률을 기준으로 실업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남녀 모두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은 40대 이후로 갈수록 실업률이 1% 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실업구조에서 연령의 효과가 가장 커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가구주 유무별 효과를 능가하였음.

공식 실업률에서는 ‘구직 행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구직의 특성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구직 기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

1)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준인 4주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출하였음.

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장기실업자 중에 남성이 많다는 특징을 반영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구직을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임. 구직방법 및 구직경로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식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실업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이 된 집단을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20대의 비중이 높아 청년실업의 심각함이 드러났으며, 특히 젊은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업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그림 1 ■ 성별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나. 공식 실업률과 유사실업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지난주에 1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 둘째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셋째 지난주에 일이 제시되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지난주에 1시간이라도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미취업자들 중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가능성이

라는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이렇게 측정되는 공식 실업률은 ILO 기준을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주요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어 구직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실업률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 지적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공식 실업률이 낮지만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과소활용인력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업의 측정을 다양한 범주로 확장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김용현(2005)은 미국 BLS의 U1~U6를 차용하여 공식실업률이 대표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잠재실업자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음. 그러나 황수경(2010:106-109)은 미국 BLS의 유사 실업률이 실망실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과거의 구직경험을 요건으로 하는 등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취업 준비자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유의 준실업상태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더 확장된 실업률을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실업률을 작성할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공식실업률 대비 유사실업률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여성의 고용상황을 공식실업률로 파악하는 경우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론적으로 노동력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되지만,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최소시간만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취업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기 때문임.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실업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지만 취업으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준실업상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취업과 실업의 중간지대(불완전취업), 그리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중간지대(잠재실업)에

실업률로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이 규모는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고, 남녀 모두 연간 추이 역시 거의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여성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음.

가장 확대된 유사실업률이라 할 수 있는 U-6의 경우에는 한계근로자와 공식 실업률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 취업자가 포함되는데, 불완전 취업자는 그 규모가 남녀 모두 약 40~50만 정도로 한계근로자나 구직단념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고 연간 변동폭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미국 BLS 유사실업률의 통계적 정의

유사실업 종류	통계적 정의
한계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자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었고, 노동시장적 사유와 개인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불완전취업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경제적 이유로 평소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한 자 혹은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을 하는 사람

실업이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간 추이는 공식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 변동의 폭은 공식 실업률보다 큼. 이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불완전 취업자 규모의 변화가 U-6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와 변화는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유사실업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단시간 근로로의 유입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공식 실업의 규모와는 달리 U-6의 값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기준을 적용한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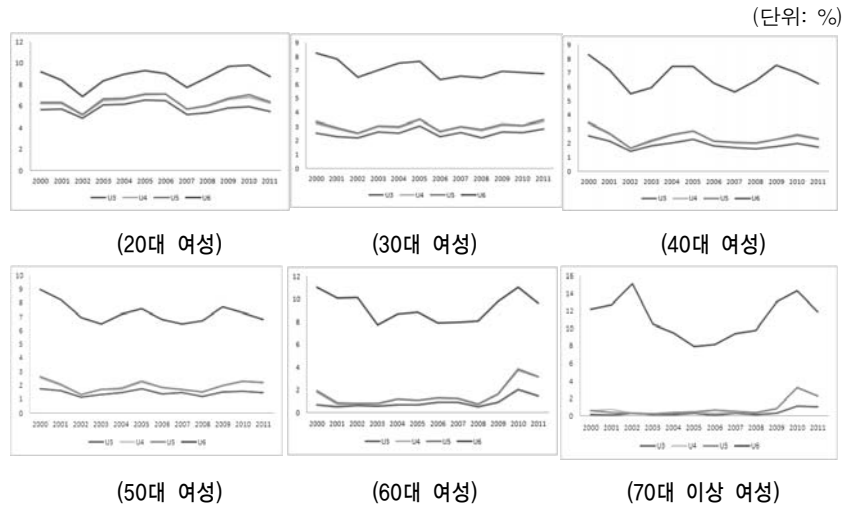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한계근로자	187	133	79	99	108	133	128	116	130	174	243	228
구직단념자	165	120	69	89	100	125	121	108	118	162	220	211
불완전취업자	916	898	847	731	900	905	843	846	925	1033	925	871
U-3	4.14	3.69	3.09	3.39	3.47	3.73	3.44	3.23	2.98	3.4	3.37	3.04
U-4	4.85	4.21	3.38	3.76	3.89	4.23	3.93	3.66	3.45	4.04	4.57	3.85
U-5	4.94	4.26	3.42	3.8	3.92	4.27	3.96	3.69	3.49	4.09	4.65	3.91
U-6	9.06	8.29	7.11	6.98	7.75	8.06	7.45	7.17	7.28	8.3	8.03	7.36
〈남성〉												
한계근로자	101	78	48	55	57	76	79	73	77	105	144	137
구직단념자	90	72	43	52	54	71	75	69	71	99	132	129
불완전취업자	455	449	442	369	459	473	444	451	474	520	461	445
U-3	4.72	4.18	3.48	3.6	3.71	3.97	3.81	3.66	3.37	3.87	3.7	3.28
U-4	5.37	4.71	3.79	3.97	4.09	4.46	4.32	4.12	3.85	4.53	4.57	4.13
U-5	5.45	4.75	3.82	3.99	4.11	4.49	4.35	4.15	3.89	4.57	4.65	4.18
U-6	8.92	8.18	7.11	6.71	7.44	7.88	7.51	7.33	7.22	8.3	7.81	7.19
〈여성〉												
한계근로자	86	55	31	44	51	56	50	43	53	68	99	91
구직단념자	75	48	27	38	46	54	46	39	47	63	88	82
불완전취업자	461	449	406	362	441	432	399	395	452	513	463	426
U-3	3.3	2.98	2.54	3.07	3.14	3.38	2.93	2.63	2.43	2.74	2.9	2.7
U-4	4.09	3.49	2.82	3.46	3.6	3.91	3.38	3.01	2.88	3.35	3.73	3.46
U-5	4.21	3.56	2.86	3.52	3.65	3.93	3.42	3.04	2.93	3.4	3.84	3.55
U-6	9.24	8.43	7.13	7.36	8.19	8.28	7.39	6.94	7.38	8.47	8.33	7.62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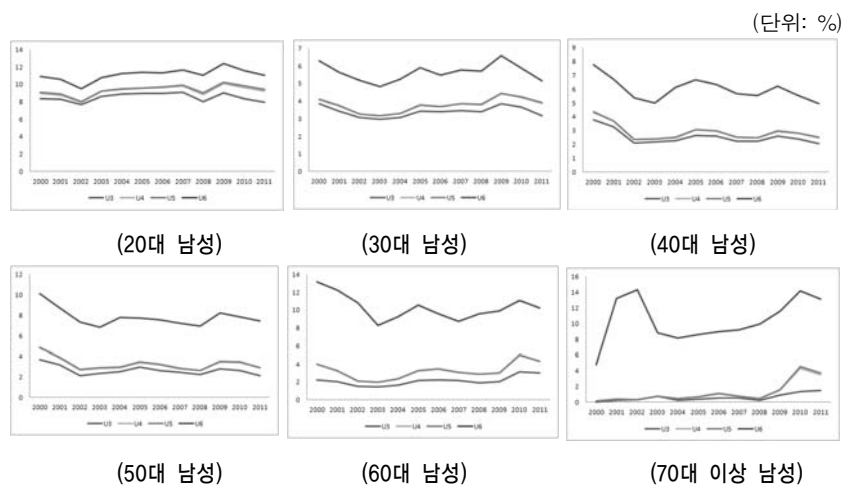
성별로 연령대를 나누어 U-3~U-6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3>, <그림 4>와 같은데 대체로 공식 실업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20대의 유사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특히 20대의 유사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남녀 모두 U-3, U-4, U-5와 U-6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이는 U-4, U-5가 높아서인데,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의 비중이 20대가 많고, 이를 포함한 U-6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런 현상은 청년층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함. 하지만 30대로 가면, 남성의 유사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지는 반면, 여성 30대는 여전히 높은 유사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20대와는 달리 U-4, U-5와 U-6와의 격차가 큰데, 이는 한계근로자나 구직단념자보다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임. 즉 30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과 맞물려, 일하고 싶지만 고용여건이 좋지 않아 단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이런 현상은 40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30대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50대부터는 여성의 경우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는 줄어드는 반면, 남성은 50대에도 여전히 3~4%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U-6도 3~40대보다 더 높아졌음. 이는 경제활동 지속기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길고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50대 이상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남녀 모두 한계근로자와 구직단념자는 거의 없고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져 U-6 값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그림 3 ■ 연령대별 여성의 유사실업 비교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 그림 4 ■ 연령대별 남성의 유사실업 비교

라. 새 유사실업률 지표 개발의 필요성

앞에서 공식 실업률의 대안으로 미국 BLS의 정의를 적용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몇가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하나는 ‘취업준비자’ 문제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에서는, 취업준비자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다면 모두 비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취업희망 여부에 관한 추가질문에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들 중 소수만이 취업을 원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이 실업에서 누락된다는 것임(황수경, 2010:115). 2008년의 경우 취업준비자 중 취업을 원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음. 또 하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U-4와 U-5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와 한계근로자(경계근로자)의 변별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함.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과는 달리 유사실업군(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을 상호배타적으로 정의하고, ‘취업준비자’를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며, 구직활동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사실업의 범주를 더 확장하고자 함. 취업준비를 주로 한 ‘취업준비자’의 경우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현재의 조사구조에서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에서 누락됨.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직난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준비자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경계근로자를 정의할 때, 미국 BLS는 ‘지난 1년 간 구직활동이 있었던 자’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본고는 ‘지난 1년 간 취업 및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로 함으로써 취업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현재의 조사구조에서는,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희망 여부를 묻지 않아 취업의사가 있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실업률이라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불완전취업자 중 주당 18시간 미만 일한 사람을 ‘부분실

업자'로 구분하였음. 이는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부분실업자로 분류하여 유사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음.

이렇게 하여 유사실업자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를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의 실업자군을 지칭하게 됨. 이 중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취업 상태이지만 실업자와 유사한 특성을 일부 공유하는 부분실업자라 할 수 있고,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로 파악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잠재실업자들임. 유사실업자의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기준은 <표 3>과 같음.

표 3 유사실업군의 구성

유형		통계적 정의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구직활동 요건의 완화)
	경계근로자	실망실업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³⁾ 근래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
	취업준비자	지난주 주로 취업을 준비했던 자로서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가 아닌 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자 + 경계근로자 + 취업준비자
취업자	불완전취업자	추가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자, 즉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
	부분실업자	18시간 미만 일한 불완전취업자
유사실업자		실업자 + 잠재실업자 + 부분실업자
유사실업률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실업자} + \text{부분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실업자})} \times 100$

3) 구직활동을 했지만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아 공식실업자에서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희망 여부를 따로 묻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취업을 희망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4>는 이 기준에 따른 유사실업자의 유형별, 성별 규모와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공식실업자수에서는 지난 8년간 뚜렷한 변화추세가 발견되지 않지만 유사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어 2003년 공식실업자 대비 1.19배에서 2011년에는 1.78배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2003~2011년 기간 중 공식실업자 규모는 남, 여 모두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유사실업자의 경우는 남자는 34만명, 여자는 21만명이 증가하였고 공식실업자 대비 비율로는 남성은 1.01에서 1.61로, 여성은 1.48에서 2.07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4 노동력상태 및 유사실업자의 하위구성 및 변화 추이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완전)취업자	21,795	22,087	22,341	22,682	22,979	23,126	22,960	23,384	23,863
불완전취업자	344	470	515	469	454	451	546	445	381
실업자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20	855
실망실업자	252	300	328	290	270	286	387	510	515
경계근로자	59	70	71	81	70	64	91	150	138
취업준비자	318	355	426	488	502	547	531	538	492
(순수)비경황	13,754	13,575	13,732	13,925	14,112	14,353	14,689	14,644	14,808
유사실업자	973	1,194	1,340	1,328	1,296	1,349	1,555	1,643	1,526
(배율)	(1.19)	(1.39)	(1.51)	(1.61)	(1.66)	(1.75)	(1.75)	(1.79)	(1.78)
〈남성〉									
(완전)취업자	12,840	12,924	13,013	13,150	13,309	13,411	13,384	13,644	13,911
불완전취업자	191	270	317	295	297	292	350	271	242
실업자	508	534	552	533	517	505	584	577	530
실망실업자	123	143	167	161	154	161	224	278	283
경계근로자	23	28	34	38	31	29	41	64	59
취업준비자	176	195	232	274	287	308	288	291	269
(순수)비경황	4,258	4,217	4,300	4,412	4,487	4,619	4,725	4,723	4,782
유사실업자	513	637	751	768	770	790	903	904	853
(배율)	(1.01)	(1.19)	(1.36)	(1.44)	(1.49)	(1.56)	(1.55)	(1.57)	(1.6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여성〉									
(완전)취업자	8,955	9,164	9,328	9,533	9,670	9,715	9,576	9,740	9,952
불완전취업자	153	200	198	174	156	159	195	174	139
실업자	310	326	334	294	266	265	304	342	325
실망실업자	129	157	161	129	116	125	163	232	232
경계근로자	36	42	37	43	38	35	50	86	79
취업준비자	142	159	194	215	215	239	243	247	223
(순수)비경황	9,496	9,358	9,432	9,513	9,625	9,735	9,964	9,921	10,027
유사실업자	460	558	589	559	526	559	651	739	673
(배율)	(1.48)	(1.71)	(1.76)	(1.90)	(1.98)	(2.11)	(2.14)	(2.16)	(2.07)

주: ()안은 공식실업자 대비 유사실업자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이제 공식 실업률과 미국 BLS 기준을 적용한 유사실업률, 그리고 본고에서 개발한 유사실업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면 <표 5>와 같음. 공식실업률과 미국 BLS 기준 유사실업률 중 실업을 가장 넓게 해석한 U-6의 배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최근 들어 조금씩 그 값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3.08, 즉 그 차이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최근에는 남녀 유사실업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식실업률과 본고가 개발한 유사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이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는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U-6 기준과 유사실업률을 비교하면, 유사실업률이 더 확장된 범주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유사실업률을 적용할 때, 여성에서 공식실업률 대비 배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식실업률이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보여주기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표 5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성	공식실업률	3.8	3.9	4.0	3.8	3.7	3.6	4.1	4.0	3.6
	U-6	8.9	8.2	7.1	6.7	7.4	7.9	7.5	7.3	7.2
	(배율)	(1.86)	(2.00)	(1.98)	(1.97)	(2.00)	(2.13)	(2.11)	(2.10)	(2.19)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7.4	8.3	9.1	9.0	8.8	8.8	10.0	9.8	9.0
	(배율)	(1.96)	(2.14)	(2.29)	(2.36)	(2.41)	(2.48)	(2.45)	(2.46)	(2.51)
여 성	공식실업률	3.3	3.4	3.4	2.9	2.6	2.6	3.0	3.3	3.1
	U-6	9.2	8.4	7.1	7.4	8.2	8.3	7.4	6.9	7.4
	(배율)	(2.39)	(2.60)	(2.44)	(2.51)	(2.63)	(3.03)	(3.08)	(2.86)	(2.82)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7.9	8.8	9.0	8.2	7.6	7.8	9.1	10.0	9.1
	(배율)	(2.41)	(2.61)	(2.66)	(2.79)	(2.87)	(2.99)	(3.00)	(2.99)	(2.92)

주: ()안은 공식실업률 대비 유사실업률 배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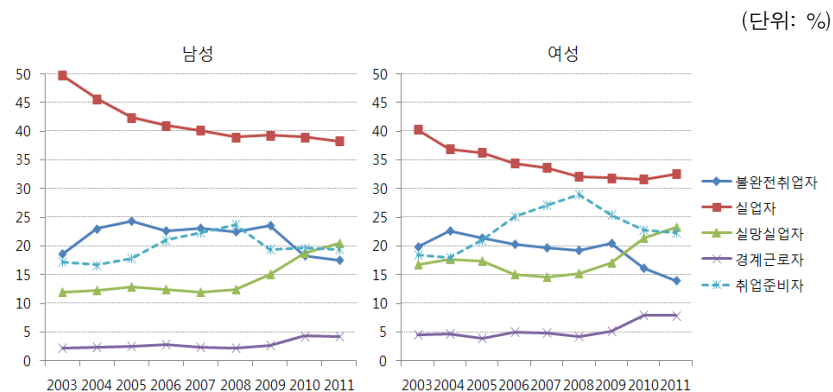
마. 유사실업률로 본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 유사실업자 유형별 규모와 변화 추이

유사실업자를 세부유형으로 구분해보면,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취업준비자는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9년 이후 오히려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잠재실업자 중에서도 실망실업자/경계근로자와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상반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불완전취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듬해에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활을 제외한 취업애로층 전체(잠재실업자+불완전취업자+공식실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는 남

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등은 여성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5> 참고). 즉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안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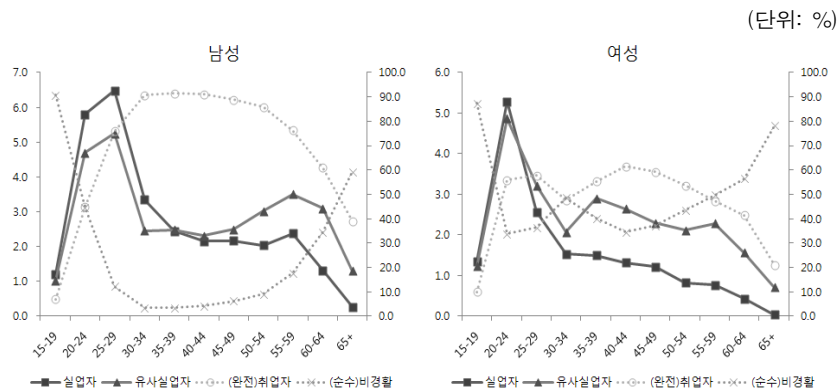
■ 그림 5 ■ 취업애로층의 구성과 변화 추이

최근 1-2년 사이 남녀 모두에서 실망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2003년에는 유사실업자 중 불완전취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취업준비자가 그 뒤를 잇고 있음.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여성에서 불완전취업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취업애로층 여성의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 여성 유사실업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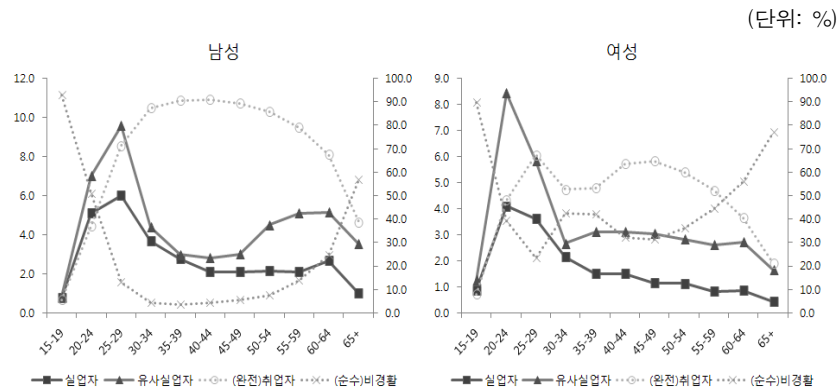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애과정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행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됨.

그리고 이는 성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냄. <그림 6>과 <그림 7>은 2003년과 2011년의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유사실업자를 제외한 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활 상태를 의미하고(우축) 실선은 공식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나타냄(좌축). 그림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연령층에서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6 ■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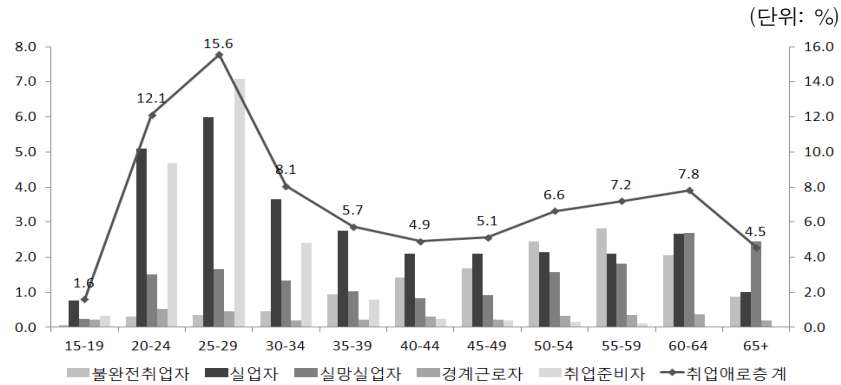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7 ■ 성별, 연령대별 노동력상태의 변화(2011년)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에서는 남성의 U자형 패턴과 여성의 M자형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남. 즉 남성의 경우 청년기에 점차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30-40대 핵심연령층에는 90% 가까이 취업 상태에 있다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청년기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30대에는 비경황이 증가하여 취업자가 감소하게 되며, 40대 이후에 일부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만 취업자 비중은 60% 초반대에 머물다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서서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양상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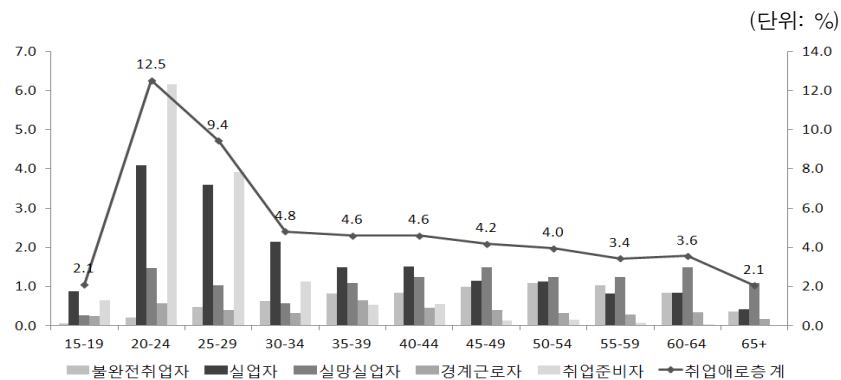
한편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연령대별 추이에서도 성별로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유사실업자는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함. 이는 남성의 고용상황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임. 여성의 경우는 실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그 후에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고용상황은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8>과 <그림 9>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로 취업으로층의 세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음.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비중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임. 그 후에도 남성은 30대 초반까지 취업준비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불완전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 남성 핵심연령층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인 50대 이후에서는 실망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8 ■ 남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총의 구성(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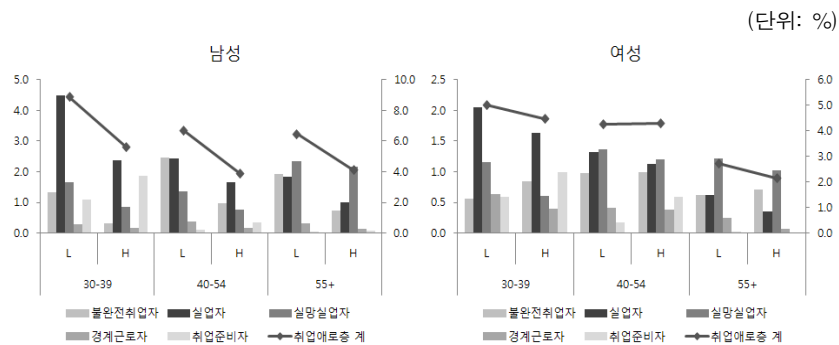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9 ■ 여성 연령대별 취업애로총의 구성(2011년)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여성의 경우는 핵심연령층에서도 불완전취업자보다는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정보다 노동시장 구속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0>은 학력수준에 따라 유사실업자 규모 및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임. 남성의 경우에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취업애로충이 많고 유사실업자의 구체적인 형태에서도 불완전취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학력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의 규모에서 학력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실업자의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은 학력 요인에 의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줌.



주: L은 고졸 이하, H는 초대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0 | 연령×학력수준별 취업애로충의 구성(2011년)

여성 유사실업자의 노동력상태별 일자리 특성

여기서는 개인의 노동력상태, 특히 유사실업 상태가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함. 취업자 및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의 특성으로, 현재 미취업자인 실업자, 잠재실업자, 비경활자 등에 대해서는 1년 내 이직한 자에 한해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함.⁴⁾

4) 2011년의 경우 실업자는 72%, 잠재실업자는 45%, 비경활자는 19%가 1년

다음의 <표 6>은 확장된 노동력 상태별 산업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유사실업자 중 불완전취업자는 남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을 위시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산되어 있음. 불완전취업자는 공식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처럼 업종의 분포는 취업자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남. 그러나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업종분포 중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21%로 가장 많았는데, 여성 취업자 중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11%인 것과 비교해 보면 비중이 상당히 큼.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본래 여성 취업자가 많은 업종이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불완전취업에서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 여성이 불완전취업 상태로 취업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

공식실업자의 직전 일자리 구성과 비교할 때, 남성은 건설업과 공공행정⁵⁾ 분야에서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게 되며, 여성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이들 잠재실업자가 많이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망실업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에서 이직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계근로자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결합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취업과 비경황 상태를 빈번하게 왕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취업준비자의 직전 일자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주로 청년층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때 이들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줌.

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5)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이 정부지원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직 후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가 많이 나타나게 됨.

표 6 확장된 노동력 상태별 산업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농림어업	6.1	4.8	1.1	3.6	4.4	1.2	12.6	6.8	6.2	1.4	6.1	3.6	0.3	15.2
광업	0.1	0.1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20.1	8.8	18.2	11.7	14.0	14.4	10.7	12.6	13.3	12.0	15.3	12.2	5.5	10.4
전기·가스·수도	0.4	0.0	0.2	0.4	1.3	0.0	0.2	0.1	0.0	0.2	0.2	0.0	0.0	0.1
하수폐기물처리	0.4	0.2	0.3	0.3	0.6	0.4	0.2	0.1	0.1	0.1	0.1	0.1	0.0	0.0
건설업	10.6	47.3	19.8	31.8	25.2	10.1	14.6	1.5	3.4	2.1	2.3	2.6	0.5	1.4
도소매업	14.4	8.9	13.8	8.9	15.0	17.1	14.7	16.0	12.2	15.7	13.4	17.3	15.3	15.8
운수업	8.6	8.2	5.7	3.6	5.3	5.5	4.7	1.2	0.6	1.3	1.1	1.1	1.1	0.9
숙박·음식점업	4.5	3.1	7.2	5.4	5.5	9.9	12.6	12.1	12.2	14.1	16.4	15.6	21.1	15.4
출판·영상·방송	3.7	1.4	4.0	2.5	1.5	2.6	1.7	1.8	0.4	3.4	0.6	3.4	4.6	1.3
금융보험업	3.0	0.4	1.8	1.2	1.1	1.3	0.9	4.3	0.7	1.2	0.9	1.9	3.5	1.3
부동산임대업	2.2	1.9	2.2	3.4	1.5	2.2	1.8	1.8	0.6	2.1	1.4	1.0	1.2	1.4
전문·과학기술	4.9	1.2	3.4	1.8	1.7	5.5	1.8	2.8	1.6	3.8	1.3	1.9	5.3	1.7
사업지원	4.3	4.8	7.5	8.4	6.8	5.8	5.6	4.8	5.2	5.8	6.0	5.4	3.7	4.0
공공행정	4.5	0.6	3.5	7.6	4.0	3.6	4.6	3.3	1.9	8.9	10.8	7.4	4.9	5.8
교육	3.9	3.1	3.3	2.0	2.7	10.6	4.8	11.1	21.0	8.0	8.5	5.7	18.1	8.2
보건·사회복지	1.8	0.0	1.8	0.9	1.5	2.2	1.7	10.6	6.5	12.9	6.3	9.6	8.7	6.8
문화·여가	1.7	1.9	3.3	2.0	4.4	3.5	3.7	1.7	2.5	2.1	1.2	2.6	2.2	2.3
수리·기타 개인	4.8	3.2	2.9	4.3	3.6	4.3	3.2	7.3	11.5	5.0	8.1	8.5	3.8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7>은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직종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남성의 경우 실망실업자와 경계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높음. 특히 실망실업자 여성은 단순 노무종사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음. 취업준비자는 청년층과 고학력이 많은 특성 때문에 남녀 모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직종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대부분이었음.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27.3%로 단순노무종사자 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불완전취업자 여성 중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일 것임.

표 7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직종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관리자	3.3	0.5	1.2	0.9	1.7	2.4	1.1	0.5	0.1	0.1	0.0	0.1	0.0	0.2
전문가	18.4	10.3	15.1	7.5	8.8	20.5	7.8	20.8	27.3	17.7	9.1	12.7	27.0	12.5
사무종사자	15.2	0.8	10.6	6.5	6.6	18.4	6.7	18.8	2.5	28.0	11.9	16.7	27.1	13.7
서비스종사자	5.9	3.3	8.4	7.4	9.1	12.5	12.8	16.2	17.7	17.0	15.2	20.0	18.4	16.7
판매종사자	10.1	4.5	8.4	6.9	8.1	9.2	8.6	14.7	8.4	12.0	11.5	14.3	17.2	14.3
농림어업 숙련자	5.9	4.2	0.9	3.0	3.5	1.9	11.1	5.9	2.2	0.3	1.8	1.3	0.0	11.2
기능원	13.2	33.1	16.8	18.3	19.8	6.8	9.7	3.3	6.5	1.4	3.4	3.0	1.0	2.7
기계조립 종사자	17.3	15.0	13.9	9.0	11.7	8.5	7.3	3.3	1.9	3.0	2.6	2.7	2.0	2.2
단순노무 종사자	10.7	28.3	24.7	40.7	30.6	19.9	34.8	16.6	33.4	20.4	44.5	29.2	7.3	2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기업의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이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남성은 잠재실업자와 공식실업자 모두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불완전취업자는 5인 미만 비중이 64.2%로 그 격차가 매우 컸음.

반면 여성의 경우 취업자와 잠재실업자 간 기업규모 비중이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완전취업자도 5인 미만 비중이 43.1%로 높아 취업자와 잠재실업자 간의 기업규모 비중의 격차는 적었음. 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취업자 여성의 5인 미만 비중이 67.9%로 매우 높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순수비경활 여성의 경우에도 5인 미만 규모의 비중이 53%로 절반 이상으로 많았음. 청년층과 고학력이 많은 취업준비자는 남성은 100인 이상의 비중이 17.9%로 다른 노동력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12.5%로 다른 노동력상태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8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사업체 규모(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자	불완전 취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1-4	37.0	64.2	30.0	37.3	33.4	25.2	44.2	43.1	67.1	31.9	42.7	45.9	37.2	53.0
5-9	13.7	21.6	22.6	26.6	24.9	21.5	21.1	14.3	13.2	21.5	19.1	18.9	18.2	16.5
10-29	16.7	10.4	23.0	22.1	20.9	21.1	17.4	16.8	11.8	21.5	21.0	15.7	18.7	14.8
30-99	14.0	2.5	14.8	8.9	11.7	14.3	9.2	14.5	5.8	12.8	10.9	10.2	13.3	8.8
100-299	8.5	0.8	5.5	2.3	6.1	10.0	4.0	5.5	1.5	6.1	2.3	4.6	4.8	3.6
300+	10.0	0.5	4.1	2.8	3.1	7.9	4.1	5.8	0.6	6.2	4.0	4.8	7.7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특히 노동력상태 중 불완전취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남성 약 96%, 여성 약 92%로 이들 집단의 열악한 고용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노동력상태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불완전취업자와 순수비경활의 경우에는 영세사업장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 비중에 비해 실업 및 잠재실업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임을 의미하지만 그중에서도 잠재실업이 많다는 것은 실직 위험에 대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공식 부문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표 9> 참고).

표 9 확장된 노동력상태별 종사상 지위 특성(2011년)

(단위: %)

	남성							여성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완전 취업 자	불완 전취 업	공식 실업 자	잠재실업			순수 비경 활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실망 실업 자	경계 근로 자	취업 준비 자	
상용직	49.7	1.7	30.8	14.6	16.2	31.1	11.4	37.5	4.0	28.1	8.9	12.1	22.1	12.6
임시직	14.9	10.4	35.5	31.6	30.3	36.2	31.4	28.8	23.6	47.1	44.8	40.8	51.7	33.7
일용직	6.0	48.7	24.5	42.7	39.5	21.2	34.2	7.4	39.9	19.8	38.0	35.2	18.4	28.0
고용주	8.4	5.5	2.1	2.1	3.2	1.9	2.6	3.3	1.1	0.9	1.0	0.1	0.1	1.7
자영자	19.8	32.4	6.0	8.1	9.2	5.6	15.9	12.2	27.3	3.3	5.1	6.3	3.3	10.2
무급가족	1.2	1.4	1.1	0.9	1.7	4.0	4.5	10.8	4.1	0.7	2.3	5.5	4.4	1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불완전취업의 경우는 일용직과 자영자에서, 잠재실업의 경우는 일용직과 임시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는 현재 불완전취업 형태로 취업해있거나 이직 후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임.

한편 취업준비자는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와는 달리 일용직 비중은 비교적 낮고 임시직과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같은 잠재실업이라 하더라도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3 정책제언

제안1) 공식실업률의 보조지표로서 새 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실업률은 노동공급의 과소활용(underutilized labour supply)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임. 급변하는 고용구조 속에서 실업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항에 매여 실업률이 과소 추정됨으로써 인력활용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실망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했고 이 지표를 사용하여 실업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경기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특히 여성 잠재실업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2011년 현재 공식실업률이 여성은 2.7%이고 남성은 3.3%이나 유사실업률은 여성이 9.1%로 급증하고 남성의 유사실업률(9.0%)을 살짝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본고가 제안한 ‘유사실업률’ 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돕고 적절한 정책설계를 건언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과업임.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동향 발표 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내지 불완전취업자나 구직단념자 등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식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착도 및 실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유도해야 할 것임.

제안2)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여성 잠재실업자를 포괄하도록 실업정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함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추이 속에서 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성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의 실업정책의 틀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실업대책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활성화 전략(labor force activation)의 대상은 구직자, 즉 실업자에 맞춰져 있고 많은 여성인력은 구직활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임.

본고는 ‘유사실업률’ 지표를 통해 여성실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음. 첫째, 남성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음.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음. 이는 잠재실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남성은 청년실업이 심각하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여성의 경우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이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고용상황이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력단절기 여성의 질 낮은 고용상태와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남성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취업준비자가 발생하

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인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이 여성집단에서 많이 발견되는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는 기존 실업정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향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여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구직활동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직업알선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실업대책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본고가 제안한 ‘유사실업률’ 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력 과소활용 지표로서 실업률의 기능을 강화하며 현단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 노동력의 확보와 여성인력의 활성화 전략(labor force activation)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김용현(2005),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 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주관부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